

교계복지관 가정문제 상담 '인기'

'부부·자녀 문제, 고부간의 갈등'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해설해 줍니다.

경제 위기로 실직한 가정의 '가정복지 상담 프로그램'을 주로 운운해 온 교계 복지관들이 남편의 타도, 성폭력, 자녀교육 문제, 가정 법률문제 등까지 범위를 넓혀 상담활동을 펴고 있어 불자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편의 구타 및 외도, 양친 부부문제, 고부간의 갈등 등이 경이 한파 이후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복지관 상담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여성의 전담연합회가 전국 19개 지부의 상담건수 4만4천174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구타로 인한 부부문제 상담이 전체의 23.1%(1만6천6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폭력(18.1%, 7천974건)과 가정 법률문제(15.5%, 6천859건), 고부갈등(3.3%, 1천4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교계 상담프로그램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의 '가정상담실'이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상담실은 남편 폭력문제, 부부간의 성격으로 인한 갈등 등을 전문 상담사가 상근하며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 필요시에는 가정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얻은 무력증, 우울감, 공포감 등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피해 정도를 전문가에게 의뢰 분석해 준다.

97년부터 상담실을 운영해 온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률 전문가가 이혼문제, 성폭력 문제 등 가정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남편의 외도로 별거 중이던 청정심보살(50)은 전화와 방문상담을 통해 남편을 용서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대구 여성의 전화 부설 대구가정폭력치료센터도 가정내 폭력에 시달리는 개인은 물론 가족집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추방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10시~오후5시까지이며 전문상담원이 고정배치돼 전화 또는 대면상담으로 이용자를 맞이한다. 특히 센터측은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스트레스

- 과천복지관 남편폭력·갈등 전문가가 지도
- 제천복지관 이혼등 법률문제 무료 상담
- 자양복지관 자녀교육·부모역할 토론·특강

관리, 인간관계 훈련 교육과 폭력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방문 상담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5월부터 '부모교육 특강' 프로그램을 개설, 한국가족복지연구소 이동순 연구원의 지도로 자녀교육 문제를 토론 형식으로 교육 하고 있다. 23일부터는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7회에 걸쳐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성신여대부설 기관인 심리건강연구소에서는 인터넷사이트(www.sungshin.ac.kr)를 통해 부부간의 대화 및 가정문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매주 2시간씩 소개하고 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서함미 상담사는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주부들은 대부분 두통을 비롯해 수면장애와 소화불량 증세는 물론 타박상 골절상 등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모두 받고 있는 게 보통이다"며 "하지만 3~4개월 동안 꾸준히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한 정신질환 증세가 지 보였다면 주부가 회복된 적도 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가정문제 상담기관

기관	전화번호
행복의 전화	(02)3611-7942
과천종합사회복지관	(02)507-6319
자양종합사회복지관	(02)458-750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육수종합사회복지관	(02)2282-1100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7
서울시 가정상담소	(02)322-1366
제천사회복지관	(043)644-2983
대구 여성의 전화	(053)475-8082
대구 행복콜센터	(062)266-0410

사찰 편역을 찾아서

소전의 수덕사·불국사 편역



소전 손재형(素峯 孫在齋·1903~1981)은 전라남도 진도 출생으로 1925년 양정고등보통학교 졸업했다. 그는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예사로 처음 입선했고, 특히 제10회 때에는 특선을 수상했다. 또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분리된 제1회 '조선서도전(朝鮮書道展)'에서는 다시 특선을 했고, 제2회 때에는 심사위원이 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소전은 고창인 진도에 진도중학교를 설립했으며 예술원 대표적이다.

동방제일선원 회화성 강한 전서 대표작 관음전 등글고 부드럽게 쓴 행서

회원, 민의원 의원,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예술인 부회장, 국회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소전은 김동희(金敦熙)로부터 글씨를 배우고 글씨와 문화에 모두 능했는데, 특히 회화성이 강한 전서를 잘 썼으며 한글 전서를 창안하는 등 현대 한국 서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서예가였다. 소전은 당시 서단을 대표하는 서예가였던 만큼 명승고적에 많은 글씨를 남겼는데, 사찰에 걸려있는 편역으로는 남양주 봉선사 〈칠성각〉, 예산 수덕사 〈덕숭산수덕사〉, 〈동방제일선원〉, 경주 불국사 〈관음전〉 편역 등이

청소년 단신

'외국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출가체험 캠프'를 열었다.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스님들의 지도로 좌선과 명상, 집중력 강화훈련, 선무도, 묵언 정진, 다도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셋강 살리기 봉사활동 서울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9월 9일 오후 2시 종량전에서 '맑은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부는 15일 고성 통일전망대 관음보살상 앞에서 '남북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통일 오계 하소서" 108배 정진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경기지부는 14·15일 양일간 양양 낙산사와 고성 통일전망대에 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8·15 55주년 기념 통일 기원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1백5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낙산사 의상대 해맞이, 통일 염주 만들기, 해수 관음상 앞에서의 통일 정진, 전국청년불자 100만배 제2차 입제식 등의 순으로 치루어 졌다. 특히 이날 참가자 전원은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콘크리트 바닥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발원하는 108배 합회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 9-12월 대구...수기등 공모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9월부터 12월까지 '2000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를 연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한 소감문과 포스터, 포어 등을 공모해 수상 전시한다. 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봉사활동 소감문과 포스터, 포어 등을 보내면 된다. 참가대상은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중고생과 봉사활동 담당교사,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자 등이며 접수마감은 9월 30일까지다. 시상은 1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053)623-4083

서울청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불교청년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소적새마을, 동지 청소년의 집, 탐골공원 등에서 봉사활동 봉사자를 기다린다. 봉사자들은 소적새마을과 대부도 동지청소년의 집에서 한달에 한 번씩 시설 청소와 점심공양 해주기 등을 하게 된다. (02)730-9108

외국인과 함께 참선캠프

인천 청소년교화연합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사 국제선원에서

건강백과

더위 먹었을 때

수은주가 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때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더위를 먹기 쉽다. 더위를 먹는 것은 더위로 발생하는 강한 열에 대해 우리 인체가 체온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두통, 설사, 현기증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더위로 인해 입맛이 없다고 해서 찬 음식이나 청량음료를 계속 먹으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돼 두통과 설사 등의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

▲오이 달인 즙-체내의 열을 가라앉힌다. 오이는 체내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작용이 있으므로, 더위를 먹어 지쳤을 때 안심먹을 수 있다. 오이는 생으로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이뇨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달여 즙을 내서 먹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만들려면 30g 정도의 오이를 익혀 곱질을 벗긴 후 여기에다 세컵 정도의 물을 부어 불의 양이 반이 되도록 달인다. 이것을 하루에 3회로 나눠 식사

후 먹는다. ▲수박·오이 해열작용 수박·오이 해열작용

▲매실 장아찌방 감장작용 매실 장아찌방 감장작용

전 공복시에 마시면 해열에 효과적이다. ▲수박-열을 식히고 이뇨작용을 한다. 수박은 열을 식혀주고 더위를 잊게 해주며 이뇨작용 또한 뛰어나다. 여름에 더위를 먹었을때는 수박을 먹거나 갈아서 쥬스로 만들어 먹는다. 특히 입 안의 갈증이 심해서 물이 먹고 싶어 질 때 먹으면 효과가 크다.

▲매실 장아찌방-여름을 타서 피로를 느낄 때 좋다. 유난히 여름을 타서 더위를 잘 먹고 스테미너가 부족해서 쉽게 피로를 느낄 때 매실장아찌방을 지어본다. 밥을 지을때 매실장아찌를 얹어 썰어 썰어 섞어서 밥을 짓는다. 1인당 한끼니분으로 매실장아찌 세 개를 넣으면 된다. 특히 더위를 탈 때에는 갈증을 일으키지 않고 강장효과를 내는 매실방을 먹으면 효과가 좋다.

▲동아-더위 예방에 좋다. 동아는 박과과 일년생 채소로 호박과 비슷해 더위 먹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좋은 채소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축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은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형함은 직접 목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든든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든든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순원식 (2개월 50만원), 순요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최선영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운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축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 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피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의료인 효성 양방·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254-2600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동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지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시초 한류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론의

무료진맥·완치!!